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뜬다

종합정비계획 1차 국비 7억4000만원 확보...5월부터 용역 추진 의견 수렴 후 증장기 과제 마련...문화유산 보수·경관 회복 등 추진

여수시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여수시에 따르면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종합정비계획 1차년도 시행을 위한 국비 7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부터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국가유산청·전남도 등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증장기 세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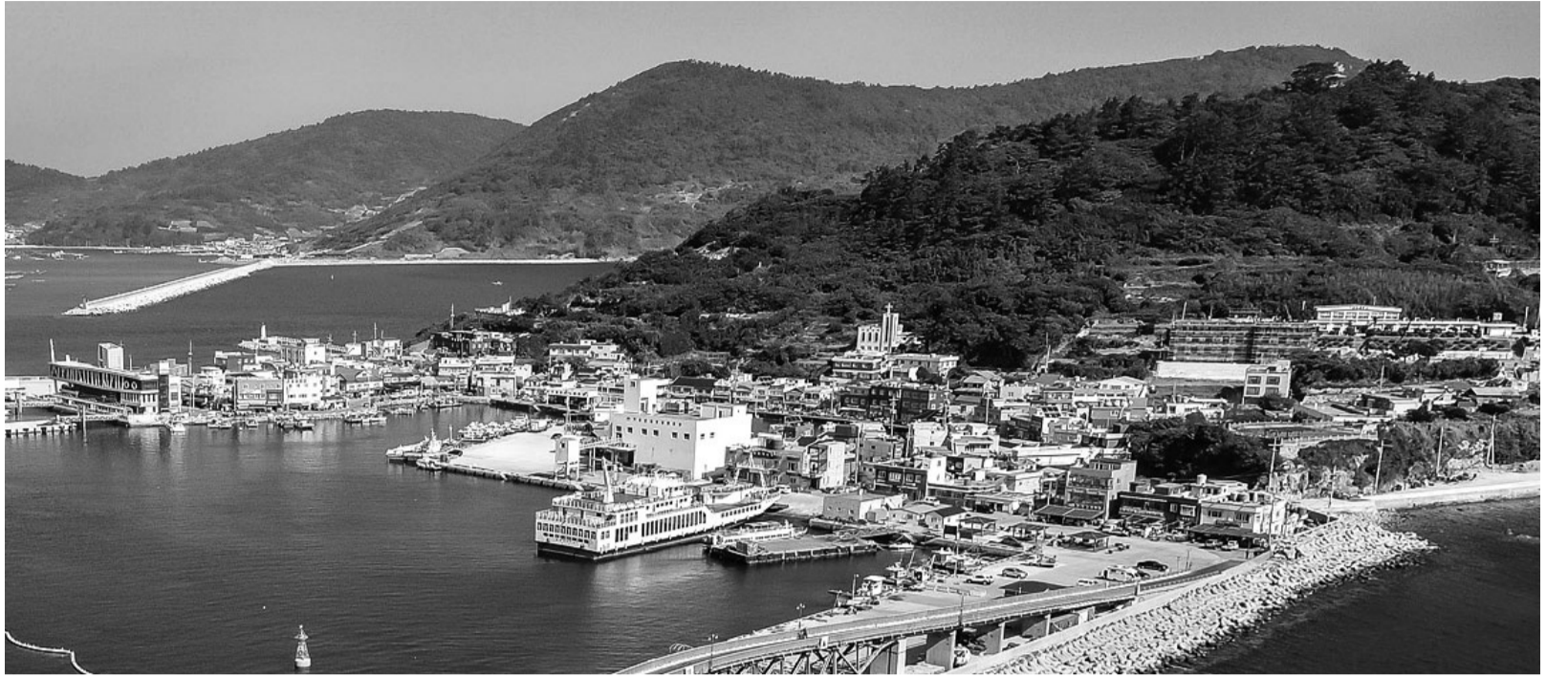
이번 사업이 추진될 거문도 거문마을 일대는 1885년 영국군 거문도 점령 사건 이후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항만·군사시설 등 근대 문화유산이 비교적 잘 보존돼 지난 2022년(8월)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4년(7월)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특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의 규모는 약 360억원이며, 향후 5년간 ▲학술 조사연구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록문화유산 보수 및 복원 ▲역사경관 회복 ▲교육·전시·체험공간 조성 ▲운영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거문도는 해양 도시 여수의 근대 생활사를 간직한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섬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반영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거문도는 2018년 목포·군산·영주 4곳을 지정된 이후 익산·영덕·통영·서천·진해에 이은 아홉 번째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등 2곳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각각 등록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여수 거문도 전경.

<여수시 제공>

바다 진미 넘쳐나는 '미식 고흥' 조성

지역축제 향토 음식 부스 운영 등 과제 추진...청결 등 실천 유도



고흥 맛집 한상 차림.

고흥군이 2030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에 발맞춰 '천만 관광객이 찾는 미식 고흥 조성'에 나선다.

고흥군에 따르면 풍부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미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4대 중점과제로 ▲영업주 자율 실천 3대 과제 목표 달성 ▲8품 9미를 활용한 지역축제 향토 음식 부스 운영 ▲음식점 인증제도 확대 추진 ▲고흥 대표 음식 활성화를 선정했으며, 12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2025년 영업주 자율 실천 3대 과제에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실천 유도, 화장실 청결 유지 및 관리, 잔반 재사용 금지 등 목표를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녹동 드린소와 고흥 유자 축제 등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타 지자체 대비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보급률이 높다는 점, 전통 방식의 생선숯불구이 시설을 현대화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을 활용해 불거리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미식 관광 선진지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군,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지원단 본격 운영...산림 연접지 100m 이내 고령·취약층 우선



보성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복숭아 과원에서 잔가지 파쇄 작업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산불예방, 병해충 감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본격 운영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특히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고령·취약층을 우선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계절별 특성을 감안해 이달부터 4월까지의 겨울철 과수 정정 작업 기간, 11월부터 12월까지의 밭작물 재배 종료 시점으로 나뉘었다.

팀별 3인으로 총 2팀으로 구성된 파쇄지원단은 기존 소각 처리 방식 대신 고춧대, 갯대, 과수 잔가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파쇄해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쇄지원단 신청은 희망하는 농업인·마을·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 농민상담소나 농

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인이 영농부산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파쇄지원단이 협의된 날짜에 현장 방문해 파쇄 작업을 무상으로 수행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가량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호응도가 높아 60ha 이상 파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4농가, 55ha에 이르는 경작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김숙희 소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일손 부족 해결과 산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및 미세먼지 저감 교육도 함께 시행해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윤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추경 4911억 편성 '민생경제 활성화'

당초 보다 300억 증액...군민활력지원금·오곡면 도시재생 등

곡성군이 지난 7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11억원을 편성에 곡성군의회에 제출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611억원보다 300억원(6.5%)이 증가한 4911억 원으로, 지난 1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79억원(6.4%)이 증가한 4667억원, 특별회계는 21억원(9.4%)이 증가한 244억원이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련하였으며, 국

도비 매칭이나 복지사업 등 필수 반영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세 혼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는 골목상권의 민생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군민활력지원금을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예산을 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군민활력지원금 지원(54억원)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20억원)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10억원) ▲묘전소하천 정비사업(9억원) 등이며, 부문별로는 농업 82억원, 지역개발 59억원, 문화관광 70억원, 일반행정 57억원 등이다.

긴축재정 속에서도 투자시기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민선8기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안정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현장 중심 의정활동

고흥군의회, 사업장 6곳 점검

고흥군의회가 오는 17일 개최하는 제333회 임시회를 앞두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0일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첫 임시회 기간(17일-26일) 중 집행부의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실질적인 군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군의회가 방문한 주요 사업장은 ▲도양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장 ▲풍남항 마린기 가공공장 배출수 공동방류시설 설치 사업장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사업장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건립 사업장 ▲동강특화농단지 조성 사업장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장 총 6개소이다.

현장을 방문한 군의원들은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다문화 이해 폭 넓혀요

순천시 '인식 개선' 강사 모집

순천시 다음 달부터 운영할 다문화인식개선 체험프로그램의 참여 강사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인식개선 체험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이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체험을 통해 다른 문화와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부터 국가별 2인 1조로 구성된 강사그룹이 초등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문화와 놀이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응시 자격은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주민이며, 희망자는 순천시 가족복지과로 14일까지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가족복지과(061-749-627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체험·놀이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광양시, 다음달 5일부터 어린이건강교육실...음식·청결 습관 등

광양시 '어린이 건강교육실'이 다음달 5일부터 광양시보건소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린다.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형식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올바른 음식 선택하기, 흡연·음주의 유해성 알기, 올바른 손 씻기·씻을질 방법 등이다.

또 어린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구활용·스토리텔링·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생·초등1~2학년 학생들이며, 교육 인원은 회당 15명이다. 교육실은 연중 운영되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은 지난 10일부터 3주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061-797-4894)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교육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흥미롭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과 놀이 중심으로 구성된 높은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